

醫統에 관한 研究(二部)

- 忠 · 烈論을 中心으로 -

安鍾沄*

目 次

緒 論	(3) 忠의 現代的 意義
本 論	① 遠心作用의 忠
Ⅱ. 孝 · 忠 · 烈 · 禮 · 義 · 仁	② 求心作用의 忠
으로서의 醫統	3. 烈로서의 醫統
2. 忠으로서의 醫統	(1) 烈의 字意的 考察
(1) 民主德目으로서의 忠論	(2) 烈의 現代的 意義
(2) 忠의 文獻的 考察	二部 結論

緒 論

甌山의 大巡思想을 大學에 부설한 學術院에서 연구하는 만큼 研究委員들의 專攻에 따라 多角的으로 연구하다 보니 宗教的 視角에서 보는 것과는 대조적인 理論 展開가 구체화되어 本 論文 “醫統에 관한 研究”도 長篇 四部작이 될 것임을 一部에서 시사하였다.

小説에서와 같이 한 作家의 想象的 創作이 되지 않기 위해서 大巡思想의 核心이라 할 醫統을 論하는 한, 典經을 原本으로 그 사상의 근원을 考證하면서 체계적으로 推理하는 방법을 택했다.

*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典經에 醫統論이 몇 군데 나오지만 가장 明白하게 언급된 부분은 甌山 化天 이후 거쳐하시던 방에서 발견된 遺書 이상 더 자세하고 의심의 여지 없는 解明은 없을 것이다. 이 遺書에 証言된 醫統을 접어두고 어떤 秘訣이나 奇事妙法을 찾으려 한다면 이미 甌山의 지시를 배반하였으므로 正道를 버리고 邪道를 택함이 될 것이다.

『…… 병겁(病劫)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법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醫統(醫統)을 잘 알아두라……』¹⁾

이와같이 直說的 訓戒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甌山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많은 宗派들이 남 모를 獨自的인 처방을 모색하고 있음을 一部 本論 I 章에서 알아 보았다.

醫統만이 치료가 가능한 그 병겁의 病名은 ‘無道病’이므로 退治할 處方은 ‘有道’임에 틀림 없다.

『……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
得其有道 則大病勿藥自效 小病勿藥自效 至氣今至四月來 禮章 醫統……』²⁾

위 言明 앞에 무슨 의문의 여지가 있는가?

‘禮章’다음에 ‘醫統’이라 하고 病勢論에 들어가서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 病勢』³⁾

위 문장을 等式으로 要約하면

1) 典經 : 公事 1장 36절
2) 典經 : 行錄 5장 38절
3) 上同

『無忠 + 無孝 + 無烈 = 無道』

∴ 忠 + 孝 + 烈 = 有道』

‘忠·孝·烈’은 禮를 실천하는 基本德目인 것이고

『大仁大義無病』⁴⁾

이라 하였으니 仁과 義는 最高 頂上의 德으로 大仁者 大義者는 병겁이 침범조차 못 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筆者는 甌山이 闡明(천명)한 六個德目を 醫統의 處方이라 보아서 이것을 現代的으로 解明하는 것이 危機로 질주하는 人類를 救援하는 길이며 醫統의 現代化라 생각한다.

특히 甌山이 내린 醫統의 結論이라 할

『……先天下之職 先天下之業 職者醫也 業者統也 聖之職聖之業』⁵⁾

에 이르러서 「職者醫也 業者統也」라 하였으므로 이것을 等式으로 정리하면

職 = 醫, 業 = 統

∴ 職業 = 醫統

즉 職業이 곧 醫統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모든 職業이 다 醫統이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끝에 「聖之職 聖之業」이라 하였으니 聖스런 職業人만이 醫統을 받는다는 말이다.

어떤 職業人이 聖스런 職種 즉 聖職者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느 特定職業도 特定人도 아닌 모든 사람이 「聖父 聖子 聖身」이 되어 自己가 맡은바 職場에서 誠心 誠意껏 最善을 다 하면 그 誠心은 聖心이 되고, 그 誠意는 聖意가 되며, 그 職業行爲는 聖行이 되어, 聖心으로 聖

4) 上同

5) 上同

意를 다 하여 聖行하면 그가 聖人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筆者는 「聖父 聖子 聖身」論의 해석을 基督教式의 三位一體說에 반대하고 누구나 子女를 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道理를 다 하면 '聖父'가 되고, 子息된 者 지극한 孝子が 되면 '聖子'가 되며, 職場이나 社會生活 전반에 걸쳐 處身에 最善을 다 하면 '聖身'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先天下之職 先天下之業」 또한 세상 모든 職業人들이 각자 맡고 있는 職業行爲에 앞서 聖人되는 일 즉 醫統을 갖추기에 힘써야 한다고 보아

『職業 職種의 高·下, 貴·賤을 막론하고 모든 職場에서 專門職에 앞서 醫統을 지키는 者 즉 倫理와 道德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者는 모두가 聖스런 職業人이기에 聖職者요 聖業人이다.』

라고 醫統研究 一部에서 해석하였다.

甌山이 末世로 急降下하는 人類를 구원하려는 새로운 救世主라면 그의 處方이 '有道라는 醫統'이요 그 구체적 項目이 忠·孝·烈·禮·義·仁이고 볼 때 이것을 올바르게 알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甌山을 참 스승이며 人類의 領導者로 섬기는 道理일 것이다.

이 때문에 筆者는 明示된 六個 德目を 先後 순서를 찾아 解明하기로 하고 基本德은 '孝'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 一部 論文에서는 醫統 入門德으로서의 '孝'를 儒家經典에서 풍부한 소재로 하여 現代人 모두 孝子が 되는 길을 알아 보았다.

人類社會에서 가장 親近한 사이는 一寸 관계인 父子之間이요 子息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道가 孝인바, 그 길을 찾아 가지 않는 不孝子는 人間되는 第一歩에서 탈락한 人間失格者로서 救濟不能의 人生重患者 즉 大病者라 하였다.

그러므로 醫統을 받고자 한다면 人間되는 基本德인 孝를 실천하는 것이 첫 順序인 것이다. 孝子が 되는 길이 결코 멀리 있지 않고 가장 쉬웁고 가까운 곳에 있음을 詳說하여 基礎醫統論으로서의 一部를 끝냈다. 이것이 一部 論文의 結論 끝 부분이자 二部 論文 緒論의 展開이기도 하다.

甌山이 '忠'을 거론한 것은

『醫統』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⁶⁾

에서 비롯된다.

「忘其父者無道」는 不孝子요 不孝子は 人間이라 불려 줄 最初의 資格條件마저 失格한 動物에 불과하고 人間되기에는 救濟不能에 가까운 重患者임을 孝를 說하는 자리에서 論証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現代社會는 孝子は 稀貴할만큼 그 數가 적어 孝를 되찾으려는 孝回復運動이 도처에서 절규하고 있다는 자체가 孝의 失蹤時代가 개막되었음이었어 이러한 歷史의 추세를 改革하지 않으면 無道時代가 되고 無道時代는 車道를 벗어나 질주하는 車輛, 鐵道를 탈선한 列車의 운명과 같은 格의 社會相이 되고 만다. 이 때는 어떤 天災地變이나 이름 모를 可恐할 病菌에 의해서 人類가 파멸하기에 앞서 人對人의 自族之亂으로 自滅할 公算이 크다.

甌山은 現代의 無道病勢 또 하나의 실례를 ‘忘其君者’를 들고 그 者는 ‘無忠’ 患者라 하였다. 이 重患者는 ‘忠’이 없어 생긴 ‘忠缺乏症者’이므로 어떻게 忠을 回生시킬 것인가, 이것이 醫統의 研究 二部에서 다뤄 질 첫 課題이다.

그러나 忠에 관한 限 문제의 소지가 크게 두 갈래로 제기된다.

하나는 甌山이 ‘世無忠’을 慨嘆(慨嘆)하고 忠回復을 力說한 忠은 어떤 性質의 內容일까?

다음은 君主主義時代는 가고 民主主義時代가 도래한 오늘날 忠誠을 바칠 君王이 없어지고 國民이 君主요 國家의 主人이라는 主客이 顛倒된 革命的 政治體制下에서 忠의 德目은 이미 時效가 상실된 것이 아닐까? 하는 문제이다.

물론 君王은 없다 해도 國家는 罔연히 있으므로 「國家에 忠誠을 다 하라」고 民主國家에서 國民에게 敎育하고 있으나, 民主國家에서 그 主體는 國民

6) 上同

이고 볼 때 國民이 國民에게 忠誠하라면 自家撞著的 忠論이라 할 수도 있다.

첫째 ‘世無忠’을 개탄한 ‘忠’을 알기 위해서 甌山の 生涯를 볼 때 1871年 辛未 陰 9月 19日 降世하여 1909年 己酉 陰 6月 24日 化天하였으니, 朝鮮朝의 國運이 쇠퇴하여 風前燈火와 같은 悲運의 時期, 그것도 1910年 庚戌 韓日合邦되기 직전의 해까지 在世하여 누구보다도 亡國의 痛恨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 원인을 캐 볼 때 國民 모두의 無忠에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忘其君者’의 ‘君’은 祖國 朝鮮이다.

아무리 君主政治體制라 하더라도 한 나라가 亡하여 침략자에게 合邦되는 것은 君主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巨大한 나라를 君主 혼자 興하게 하고 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大小 職級の 爲政者와 國民 전체의 國家觀과 國民된 義務意識의 強·弱, 올바른 人生觀을 向한 實踐 誠實力 여하에 國力은 左右된다. 君王은 國民 전체를 代表해서 興亡의 책임을 질 뿐, 모든 책임이 君王에게 전가될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甌山은 祖國이 歐美 列強國이거나 日本에게 敗亡할 지경에 빠지게 한 總責任은 國民 모두라 보아서 ‘忘其君者’의 ‘者’는 당시 國民全體를 指稱한 것이다.

따라서 ‘亡其君者無道’의 ‘無道’는 國民들 모두가 ‘無忠’할 때 ‘亡國’을 結果한다는 준엄한 敎訓이다. 그러므로

世無忠 → 亡國

世有忠 → 興國

∴ 世有無忠 → 國家興亡

이라는 論理로 整理된다.

한 家庭에 不孝子가 생기면 敗家亡身하고, 한 國家에서 國民이 모두 不忠하면 國家를 支탱 유지할 資格을 상실하여 亡國之民으로 植民地의 奴隸가 된다는 豫見의 敎訓이기도 하다.

이 교훈은 君主主義時代나 民主主義時代나 예외없이 國家를 삶의 터전으

로 살아 가는 限 길이 그 時效가 지속될 歷史 興亡의 敎訓이 될 것이다.

둘째, 君主主義時代가 가고 民主主義時代가 도래한 오늘날 누구를 向한 ‘忠’인가의 문제를 살피기로 한다.

이미 앞에서 國民들의 忠誠心은 君主時代나 民主時代나 一貫하여 國家의 興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거니와, 과거 封建社會 絶對君主主義時代의 國民 從屬化위한 反民主 德目이 어떻게 國家의 主體가 된 國民에게 누구와 무엇을 위해서 忠誠할 것인가 크게 문제가 된다.

甌山이 ‘忠’을 醫統의 하나로 중요시한 것도 君主時代に 降世하여 民主主義를 체험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天尊 地尊보다 人尊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天地公事로 人尊時代를 開幕한 甌山이 不遠 도래할 民主時代를 이해 못 했다고 하면 그는 甌山을 이해 못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世無忠’을 개탄하고 力說하는 ‘忠’은 人尊時代의 ‘民主화된 忠’ 일 것이고, 그 忠의 對象은 君主主義가 民主主義로 主體가 바뀌듯, 國民 各者가 自身이 나라의 主人이요 君主인 이상 自身에게 忠誠을 다 하는 것이다.

‘民主화된 忠’ ‘民主德目으로서의 忠’ 이것이 醫統의 숙제를 풀어 가는 二部 本論의 첫 課題이다.

二部 論文의 둘째 課題는

『忘其師者無道……世無烈 是故天下皆病』

이다. 스승의 은혜를 忘覺한 者들 때문에 世相이 어지러워 無道末世를 초래하므로 救濟의 길은 ‘烈’을 회복하는 일이라 하였다.

스승을 背反하는 者는 곧 背師律을 犯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罰을 받으리라고 하였다.⁷⁾

背師律은 背信罪에 해당하고 背信者들이 많은 社會相은 不信風潮가 만연하여 서로 속고 속여 믿을 사람이 없고, 怨恨이 범람하여 人生으로 더 이상

7) 典經 : 教法 3장 34절 257面

살아갈 의욕과 氣力이 쇠진되는 상태에 이른다.

不信社會의 특색은 詐欺·欺瞞 不條理 不正 腐敗로 썩어버린 重病社會가 된다. 穀食 植物도 地力이 왕성한 땅에 씨앗 뿌려 가꿔야 풍작을 이루지만 각종 폐기물로 오염이 극심하여 땅이 썩으면 성장도 안 되려니와 곡물을 다 소 수확했다 해도 有害物質로 오염된 것은 有害食品이어서 폐기처분해야 한다.

물고기에 있어서 삶의 터전은 水中인바, 요즘 環境汚染문제가 심각하여 水質도 工場廢水 畜産廢水 家庭生活廢水등으로 크게 오염되어 魚族이 폐죽음하는 광경을 放映을 통하여 볼 때마다 이것들이 人類가 저지른 自然에 대한 罪惡相이요 그 罰은 人類마저 살 수 없는 죽음의 地球로 만들 것이라는 豫感이 절실하다.

이것은 人類가 우리 全生命體의 삶의 터전인 自然에 대한 大背信行爲요 自然의 고마움, 自然의 은혜를 저버리는 大背師律을 犯함인 것이다.

이러한 物理的 背信 背師 못지 않게 精神的 背信으로 충만한 社會는 극도로 오염된 水中의 魚類가 滅種하듯, 精神價値가 沒落 失蹤하여 野獸界와 다름 없는 社會가 될 것이다.

自然과 人間社會에 대한 背信으로 황폐화되어 가는 현실을 淨化할 처방은 ‘烈’이라는 醫統에 있다 하니 本論에서 解明하기로 한다.

本 論

II. 孝·忠·烈·禮·義·仁으로서의 醫統

2. 忠으로서의 醫統

1) 民主德目으로서의 忠論

甌山이 韓日合邦이라고 하는 亡國이 目前에 실현될 一年前에 化天하면서 남긴 ‘世無忠 無道病’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國家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갈 國民된 者 모두에게 亡國民의 痛恨을 事前에 예방하여 주는 救國의 敎訓이자 國家를 발전시킬 수 있는 富國의 處方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忠’을 연구하자면 君主主義時代이건 民主主義時代이건 政治體制를 一貫하는 政治生命으로 파악하여 그 原理를 탐구해야 할 것이요 封建社會 君主政治體制下的 反民主德目이라는 先入感은 버려야 眞意가 導出될 것이다.

甌山이 亡國大病을 치료할 有道로서의 忠 즉 醫統의 한 處方인 忠도 民主時代인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그것이 民主國家 발전의 原動力이 될 수 있는가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忠’이라 할 때 日常 觀념상으로는 君臣관계나 國家와 個人과의 관계에서 國民된 者 개개인이 統治者 혹은 통치기구에게 心身을 다하여 복종을 美德으로 하는 從屬倫理德目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그러한 實例로 이나라는 自由民主主義 政治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매일같이 國旗에 맹서하기를

『나는 자랑스런 太極旗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榮光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忠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에서도 잘 나타나 있으며 道義敎育의 첫 구호는

『父母님께 孝道, 나라에 忠誠』이

不文律로 되어 있다.

이것은 아직도 儒敎文化圈 동양사회의 전통적 倫理의식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忠'은 文字構造로 보거나 이 德을 승상한 儒敎의 根本精神에 비추어 보더라도 大를 위해서 小의 희생을 권유하는 從屬倫理德目이 될 수는 없다.

오늘날 儒敎의 발상지 中國에서 非孔運動으로 儒敎를 추방할 때 進歩的民主主義로서의 共產主義에 逆行하는 反民主德目の 표본이 忠으로 지목되고, 많은 中國學者들은 孔子의 出身 成分이 士大夫 上流社會層에 속해서 貴族계급 統治方式을 기도하며, 貴族계급의 利益을 유지하자면 당연히 舊制度를 보존해야 할 것이고 그러자면 구제도에 대한 合理的 理論體系를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⁸⁾

그래서 孔子는 二千餘年間 地主封建社會의 思想的 指導者로서 聖人으로서 지 존되었지만 정치면에서 본다면 保守的인 地主封建制度를 復古하려는 것이므로 進歩的 的의는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⁹⁾

孔子는 勞動과 勞動者를 경시했으며 階級社會의 통치계급의 색채가 뚜렷했다는 것이다.¹⁰⁾

따라서 孔子는 당연히 착취계급의 思想家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¹¹⁾

이렇게 볼 때 '忠'의 사상은 階級社會를 더욱 확고부동하게 구축해서 下位者로 하여금 上位者에게 盲目的으로 복종을 强要하는 奴隸道德의 표본이라고 共產主義 사상가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 한 例로 曾子가

8) 童書業 ; 〈孔子思想研究〉『孔子思想討論集』中華書局 3~4面 參照

『孔子站在屬士夫的立場上, 企圖維持貴族階級的統治地位.

當然更主要的是由于孔子的階級立場是貴族的, 爲了維持貴族階級的利益, 就必須保持旧制度, 就必須建立一種理論根據……』

9) 高亨 : 〈孔子思想三論〉『孔子思想討論集』中華書局 367面 參照

『孔子的成爲二千多年, 地主封建社會的指導思想, 他被地主封建社會尊崇爲聖人. 如果他在政治方面主張一切都保守領主封建制度之旧. 恢復領主封建制度之古, 沒有什麼 進歩主義……』

10) 王先進 : 〈孔子在中國歷史上的地位〉 上揭書 132面 參照

『他輕視 勞動和 勞動人民, 這充分地表現了, 他在階級社會中統治階級的本色』

11) 湯一介 : 〈孔子思想在春秋末期的作用〉 上揭書 76面 參照

『當然孔子是一個剝削階級的思想家……』

『孔子님의 道는 忠과 恕 뿐이다.』
(夫子之道 忠恕而已矣.)(論語：里仁)

라고 파악한 점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忠이란 奴隸가 노예주인에게 忠誠을 해야 함이요, 大夫 陪臣은 諸侯에게 忠誠을 해야 하고 諸侯는 周天子에게 忠誠을 해야 함을 말한다.』¹²⁾

이제 ‘忠’이 왜 이처럼 從屬倫理 德目の 度を 넘어 反民主 惡德으로까지 曲解되어지고 있으며 그 眞正한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正然 民主主義時代에는 설 자리가 없는 時效 喪失한 封建社會의 奴隸道德인가? 項目을 나누어 深層的으로 高찰하여 筆者의 「民主德目으로서의 忠」論의 正當性을 제시하고 人尊時代의 主役될 資格이 ‘忠’에 있음을 論證하고자 한다.

2) 忠의 文獻的 考察

‘忠’한 字만으로 깊은 뜻이 부여되어 道德教育의 중요한 몫을 한 것은 孔子에게서 비롯된다.

물론 西洋에 있어서 英語를 보면 ‘忠’에 해당하는 德目이 여러개 있어 尙상되고 있으나 儒學에서 처럼 單一 文字的 用法은 東西古今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世界語化 된 英語의 경우를 들어보기로 한다.

忠誠：loyalty, faithfulness, devotion, fidelity, allegiance, sincerity, seriousness

忠實：faithfulness, honesty, fidelity, sincerity, faith.

忠心：faithfulness, loyalty, fidelity.

忠節：faithfulness, loyalty, fidelity, allegiance, devotion.

12) 上海師範大學 政治教育科 編著：「中國哲學史綱要」上海人民出版社 刊 17面 參照

『孔丘還提出 ‘忠恕之道’ 作爲實行 ‘仁’的一條根本途徑.

他的學生曾參說；‘夫子之道 忠恕而已矣’ 所謂 ‘忠’ 就是要奴隸忠于奴隸主，大夫陪臣忠于諸侯，諸侯忠于周天子……』

등을 보아도 ‘忠’의 뜻에 유사하기는 해도 ‘忠’의 핵심을 지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 ‘忠誠’ ‘忠實’ ‘忠節’ ‘忠心’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지 않고 한 單語가 경우에 따라 混用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西洋에 있어서도 ‘忠’이 忠誠 忠實 忠節 忠心の 뜻으로 숭상되어 오고 있음을 証言함이라 하겠다.

그러나 ‘無忠’ ‘無道’한 사회는 사람들이 不誠實하고 無誠意하며 每事に 最善을 다 하려는 氣魄·精神力이 없으니 成事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個人들로 구성된 국가라면 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쇠망의 길로 下降할 것이 自明하다. 이 모두 個人的 私的 不幸과 國家社會의 公的 不幸이 혼합된 總體的 不幸이다.

이것을 防止하는 德目이 ‘忠’이기에 孔子는 人間教育의 소중한 指針으로 삼았다.

孔子의 道德思想 가운데 ‘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첫 句節을 찾다면 앞에서 引用한 曾子의 견해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曾子는 수많은 孔子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긴 시간에 걸쳐 측근에서 모시고 孔子의 道를 後代에 전한 대표적 인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信憑性이 높다고 보겠다.

『孔子 말씀에 「參아 나의 道는 하나로 관철되느니라」 하시자 曾子 말하기를 「그런줄로 알고 있습니다」

孔子가 밖으로 나가자 門人이 묻기를 「무슨 말씀인가요?」 曾子 말하기를 「孔子님의 道는 忠과 恕일 따름입니다」 하고 하였다.』¹³⁾

는 말을 비롯하여

『子張이 묻기를 德을 숭상하고 미혹에서 벗어나는(辨惑) 길이 무엇입니까? 孔子 말씀하기를 忠과 信에 힘쓰고 義로운 일을 실천하는 것이 德을 숭상하는 것이다.』¹⁴⁾

13) 『子曰參乎，吾道一以貫之。曾子曰唯。子出，門人問曰何謂也。曾子曰夫子之道，忠恕而已矣』(論語：里仁)

14) 『子張問崇德辨惑。子曰主忠信，徙義，崇德也』(顏淵)

『樊遲가 仁을 물으니 孔子 말씀에 공손하게 거처하고 경건하게 집무하며 對人관계에 충성스러우면 비록 오랑캐의 땅에 가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¹⁵⁾

『子張이 處世行實문제를 묻자

孔子 말씀에 말은 忠直하고 진실하며 行實은 돈독하고 공경스럽게 하면 비록 오랑캐땅에 가서도 살 수 있으려니와 말이 충실하지 못하여 믿음성이 없고 行實이 불손하면 어찌 자기 마을과 近洞에서 사람 대접받고 살 수 있겠느냐?』¹⁶⁾

등의 말을 미루어 볼 때 忠은 野蠻人社會에 가더라도 그들을 感化시킬 만큼 숭고한 德으로 평가되어 仁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교육되었다.

기타 문헌에도 같은 내용들이다.

『선비는 金과 玉을 보배로 생각지 않고 忠과 信을 보배로 삼는다.』¹⁷⁾

『君子는 德業을 닦고 정진하니 忠과 信이 德에 정진하는 것이다.』¹⁸⁾

『君子는 大道가 있으니 반드시 忠과 信으로 얻고(大道를), 교만하고 거만하면 잃게 된다.』¹⁹⁾

이와 같이 「忠·信」이 修德의 至寶의 大道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忠’의 正體에 대한 의미 내용을 풀이한 것 즉 概念論的 定義를 내린 것은 찾아 보기 어렵다. 다만 論語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子張이 묻기를 「子文은 세 번이나 令尹벼승에 올랐으나 기뻐하는 氣色이 없었고 세 번이나 물러나며 怒여워하는 기색 없이 舊任 令尹으로서 政事를 新任 令尹에게 정직하게 인계하였으니 어떻다고 보십니까?」

孔子 말씀에 「忠이니라」

子張 다시 묻기를 「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5) 『樊遲問仁，子曰居處恭，執事敬，與人忠，雖之夷狄，不可棄也。』(子路)

16) 『子張問行。子曰言忠信，行篤敬，雖蠻貊之邦行矣，言不忠信，行不篤敬，雖卅里行乎哉。』(衛靈公)

17) 『儒有不寶金玉，而忠信以爲寶。』(禮記：德行)

18) 『子曰君子進德修業，忠信所以進德也。』(易：乾卦象辭)

19) 『君子有大道，必忠信以得之，驕泰以失之。』(大學：傳第十章)

孔子 말씀에 잘 모르겠지만 仁이라고야 말할 수 있겠느냐?」²⁰⁾

官職에 등용되었다고 기뻐하지 않고 退任당하였다고 실망의 기색을 나타내지 않으며 자신이 집무하던 政事에 차질이 없도록 舊任者로서 新任者에게 실무를 報告 인계하는 책임의식을 孔子는 '忠'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의미 내용을 분석할 때, 첫째 官職에 기용되었다고 기뻐하고 退任되었다고 落心하는 관료라면 자기개인의 榮達에 집착된 私利私慾을 앞세우는 者로서 公務는 자연히 疎遠하여 先私後公의 표본적 官吏가 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官吏는 본연의 職務보다 私事를 위해서 政事(國事)를 경히 다룰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在任其間中 맡아 보던 政事따위는 자신이 물러난 뒤에 어찌 되었던 관여할 바 아니므로 新任者에게 차질을 우려하여 「必以告新令尹」할 리 없다.

여기에서 추리되는 忠은

- ① 맡은 바 임무에 最善을 다 하는 것
- ② 지속적인 責任意識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孔子의 '忠'의 정신이 階級社會의 從屬倫理 德目으로 曲解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季子然이 묻기를 「仲由과 冉求是 大臣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孔子 말씀하기를 「나는 그대가 특별한 질문을 하는 줄 알았더니 겨우 由와 求에 대한 물음이었구나. 大臣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道로서 임금을 섬기고 그것이 不可하면 그만두는 법인데 由와 求是 臣下의 자리 數를 갖추는 사람이다.」 다시 묻기를

「그러면 복종을 잘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孔子 말씀에 아버지와 임금을 죽이는 일에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²¹⁾

이렇게 大臣은 「以道事君」해야 한다 하고, 그 「事君」의 道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20) 『子張問曰令尹子文，三仕爲令尹無喜色，三已之無恤色，舊令尹之政，必以告新令尹，何如。子曰忠矣。曰仁矣乎。曰未知，焉得仁。』(論語：公治長)

21) 『季子然問仲由冉求可謂大臣與。子曰吾以子爲異之問，曾由與求之問。所謂大臣者，以道事君，不可則止，今由與求也，可謂具臣矣。曰然則從之者與。子曰弑父與君，亦不從也。』(先進)

『定公이 묻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데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孔子 말씀하기를 임금은 신하를 禮로써 대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忠으로
섬긴다고 하였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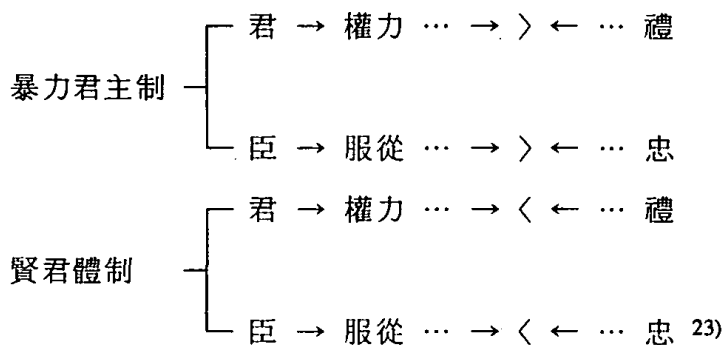
여기 「臣事君以忠」이라는 다섯 字의 표현이 絶對君主 政治體制下에서 臣
下된 者 唯一君主를 섬기는 不動의 道理로서 信奉되 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君使臣以禮」의 경우는 君主가 「禮」를 어떻게 파악하
여 어느 정도로 臣下를 禮遇하느냐로서 君主의 品位가 평가되어 질 것이다.

孔子의 「君禮」, 「臣忠」의 해답은 얼마든지 해석자에 따라 有利하고 다양하
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

즉 君主 權力이 비대하면 할수록 「君의 禮」는 약화되고, 「臣의 忠」은 복
종의 美德으로 강화되며, 반대로 賢君은 權力의 남용이 약화될수록 君主가
지켜야 할 「禮」는 강화되고 臣下가 바쳐야 할 복종으로서의 「忠」은 약화되면
서 本然의 「忠」으로서의 人間的 最善과 貴任意識은 강화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原理를 數理的으로 정리할 때 다음과 같은 不等式이 성립된
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유도할 수 있다.

- 君主의 權力과 臣下의 服從은 同質 相關概念
- 君主의 禮와 臣下의 忠은 同質 相關概念

22)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八佾)

23) 數學에 있어서의 不等式은 $a > b$ 이지만, $a \dots \rightarrow > \leftarrow \dots b$ 라 한 것은 a 가 점진적
으로 커가면 b 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는 式을 구상하여 考察한 것이다.

- 君主의 權力과 君主의 禮는 異質 相反概念
- 臣下의 服從과 臣下의 忠은 異質 相反概念

이처럼 ‘忠’은 數理的으로 분석할 때 政治社會의 많은 문제들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올바른 道德人의 길이 무엇인가 自覺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그 한 例로서 獨裁君主의 權力이 강화되는 정치사회는 ‘忠’의 美德을 차용하여 국민에게 服從을 美德이라 강요할 것이므로 두 概念은 不可分의 相關概念에 있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국민의 公僕이라는 사명감에서 국민을 優待하는 道德的 主體者로서의 君主의 善政下에서는 (禮治) 국민 모두 그를 示範으로 人間的 最善과 應分の 위치에서 책임 완수에 앞을 다툰 것이다. 이것이 眞忠이다.

그러나 국민이 統治者에게 언제나 服從만 하는 것이 ‘忠’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暴力君主의 權力만 비대하게 하여 그의 오만하고 無禮함을 助長하여 주는 결과가 되고 국민 각자 스스로의 人權을 유린하는 행위가 된다.

從的 人間關係 社會에서 下位者가 上位者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은 人道主義에 위배됨이요 人間の 尊嚴性을 끝없이 추구하는 道德哲學에서 용납될 수 없는 奴隸的 身分으로 전락함이다. 그래서 孔子는 「大臣이라는 身分을 갖춘 사람은 道로서 임금을 섬길 것이요 道가 통하지 않는 君主는 섬기지 말라」(子曰 …… 所謂大臣者, 以道事君, 不可則止) 고 하였던 것이다.

만일 高官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君主에게 비굴하도록 아첨하고 不正과 不義에 盲從한다면 그것은 國政을 문란케하는 奸臣輩의 소행이다. 忠臣은 正義를 위해서 最善을 다해야 하므로

『孔子 말씀에 사랑하면 어찌 고달프지 않을 수 있으며 忠誠스러우면 어찌 깨우쳐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²⁴⁾

하였던 것이다.

어리석은 君主를 만나면 깨우쳐 善導해야 하지만, 그 忠情을 끝내 거부하

24) 『子曰愛之, 能勿勞乎. 忠焉, 能勿誨乎』(憲問)

면 아무리 高官의 지위라도 미련없이 결별할 수 있는 勇氣의 소유자가 진정한 忠臣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孔子에게 있어서 '忠'은 「事君以忠」이라고 했다 하여 臣下가 君主를 섬기는 德目으로 통념화 되었지만 그 '忠'은 「以道事君」이라는 言明으로 「道로서의 忠」인 바, 이 「道」는 人間된 者 正當히 지켜가야 할 「正義의 길」 「正道」일 것이요 결코 비굴하게 權力 앞에 아부하고 不義에 굴복하며 追從하는 奴隸道德이 아님이 「不可則止」로서 確然히 밝혀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忠'하면 現代社會에서 까지도 國民은 國家나 統治者에게, 小가 大를 위해서 복종하는 희생의 美德이라는 先入感이 固定觀念化된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東洋의 政治社會가 고래로부터 絶對君主主義體制로 계승되어 오면서 君主가 統治者로서의 義務와 道理(禮)를 다 하기에 힘쓰기 보다 國民에게 服從만을 強要하는 支配欲求가 孔子의 名譽를 이용하여 正當化하고자 「事君以忠」의 '忠'을 歪曲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統治者를 향한 權威主義的 忠은 眞忠이 아니다.

오늘날 共產主義者들이 孔孟之道를 특히 「忠·恕」를 代表로 내세워 反民主 奴隸道德으로 보는 것도²⁵⁾ '忠'의 眞義를 외면하고, 以上 言及한 東洋의 전통사회 이래 權力을 남용한 君主들의 越權的 支配慾에 의하여 歪曲된 忠을 本然의 것으로 잘못 인식한 研究 不足때문이라 하겠다.

다시 문헌을 통하여 '忠'의 眞義를 알아 보기로 한다.

左邱明은 國語에서

『마음 속에서 울어나와서 하는 것을 忠이라 한다.』²⁶⁾

左傳에는

『忠은 公衆의 利益됨을 알고 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²⁷⁾

25) 『上海師範大學 政治教育科 編著 : 「中國哲學史綱要」 上海人民出版社 刊 17面 參照

26) 『出其心意爲忠』(國語)

27) 『忠者公衆之利知無不爲』(僖公九年)

『私的인 일로 公的인 일을 해치면 忠이 아니다.』²⁸⁾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國事를 잊지 않는 것을 忠이라 한다.』²⁹⁾

『밖으로는 強하고 안으로는 따듯한 마음을 忠이라 한다.』³⁰⁾

賈誼는 新書에서

『忠은 厚德한 것을 말한다.』³¹⁾

『忠은 곧 美德을 말한다.』³²⁾

小戴 禮記에서

『忠은 안으로 진심을 다하는 것이다.』³³⁾

班固는 白處通에서

『三教에서 忠을 앞에 두는 까닭은 어떤 행실에 있어서도 根本이 되기때문이다.』³⁴⁾

『人間的 道理는 忠이 주축이 된다. 사람이 지극한 도리로 사람을 교육하면 지극한 忠誠이라 하겠다.』³⁵⁾

『忠은 너그러움을 말한다.』³⁶⁾

許慎은 說文에서

『忠은 敬을 말한다.』

『盡心을 忠이라 한다.』³⁷⁾

馬融은 忠經에서

28) 『以私害公非忠也』(文公六年)

29) 『臨患不忘國忠也』(昭公元年)

30) 『外強內溫忠也』(昭公十二年)

31) 『忠德之厚也』(大政篇)

32) 『有忠德之美也』(道德說)

33) 『忠者內盡於心也』(祭器篇)

34) 『三教所以先忠何行之本也』(三教)

35) 『人道主忠, 人以至道教人, 忠之至也.』(三教)

36) 『忠者厚也』(崩薨)

37) 『忠敬也…… 盡心曰忠也』(十篇下 二五)

『忠은 마음 속이 지극히 公正하고 私心이 없음을 말한다. 하늘은 私心이 없어 四時가 운행하고 땅은 私心이 없어 萬物이 化生하며 사람은 私心이 없으면 크게 형통하고 바르다.....』

『忠이란 마음을 하나로 集中함을 말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忠에 연유치 않음이 없으니, 忠은 그 몸에서 일어나 가정에서 드러나고 나라에 成事하는바 그 작용이 한결같다.』

그러므로 그 몸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一心으로 精神統一됨) 忠의 시작이요, 한 가정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家族의 和合) 忠의 중간 단계요, 한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은 (國民 和合) 忠의 마지막 단계이다.』

『한 몸이 뜻하는 바에 하나로 集中되면 백가지 복록이 도래하고, 家族이 모두 一心이 되면 六親이 和合되고, 國論이 統一되면 萬百姓이 平和롭다. 그래서 書經에 이르기를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여 기쁜 마음으로 中正을 지키라고 하였다.』

나라 백성들이 忠誠스러우며 仁을 숭상하면 나라에 德이 빛나고, 충성스러우며 슬기로우면(能知) 政事가 흥하고 충성스러우며 용맹하면 國難을 극복할수 있다. 그러므로 매사에 능숙하다 하더라도 충성스러워야만 성공할 수 있다.

어질기만 하고 충성스럽지 못 하면 그 은공이 私事롭고, 알기만 하고 충성스럽지 못 하면 거짓된 글이 되고, 용맹스럽고 충성스럽지 못 하면 난폭하기 쉬움다. 이것으로 보아 매사에 능숙하다 할지라도 忠誠스럽지 않으면 실패하고 만다.』³⁸⁾

朱熹는

『自身の 最善을 다하는 것을 忠이라 한다.』³⁹⁾

- 38) 『忠者中心至公無私也. 天無私四時行, 地無私萬物生, 人無私大亨貞. 忠也者, 一其心之謂也. 爲國之本, 何莫由忠, 夫忠興於其身, 著於家, 成於國, 其行一焉. 是故一於其身, 忠之始也. 一於其家, 忠之中也. 一於其國, 忠之終也. 身一則百祿至, 家一則六親和, 國一則萬人理. 書云惟精惟一, 允執厥中. 夫忠而能仁, 則國德彰, 忠而能知, 則國策舉, 忠而能勇, 則國難靖. 故雖有其能, 必由而成也. 仁而不忠, 則私其恩. 知而不忠, 則文其詐. 勇而不忠, 則易其亂. 是雖有其能, 以不忠而敗也.』 (忠經)

忠經이 馬融의 著書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그 한 例證으로 馬融 本傳에도 忠經은 보이지 않고 隋書 經籍志 唐書 藝文志에도 실리지 않고 宋崇文總目에 비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後世人의 作이라 볼수 있다고 한다.

高瀬武次郎 著 : 「支那哲學史」 446~447面 參照

그러나 本項이 馬融의 思想研究가 아니라 '忠'에 관한 研究이기 때문에 著者考에 개의치 않고 '忠'이 學者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만을 살핀다.

'忠經'이 아직까지 馬融 이외의 作者가 없으므로 傳來의 說을 따른다.

- 39) 『盡己之謂忠』 (中庸 : 第十三章, 朱子 註)

楊倬은

『忠은 精誠을 말한다.』⁴⁰⁾

以上 '忠'에 대한 대표적 學說을 살펴본 바, 下位者가 上位者를 위해서 희생을 讚美한 견해는 찾아 볼 수 없으려니와 一貫하여 공통된 점이 있다면 '忠'은 至極한 厚德이므로 겸손하고 엄숙하게(許慎) 정성을 다하여(楊倬) 一心의 集中으로(馬融) 자신의 最善을 다하는(朱子) 거룩한 創造的 精神임을 알게 되었다.

(3) 忠의 現代的 意義

이러한 忠은 현대에 와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며 어떠한 價値를 우리에게 부여하는가 고찰하기로 한다.

共產主義的 사고방식대로 忠이 階級社會에서 上位者에 대한 下位者의 服從의 美德이라면, 오늘날 階級鬭爭을 至上課題로 하는 共產主義社會에서는 용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萬人 각자에게 能力껏 幸福을 추구할 수 있고 尊嚴性을 실현할 自由를 平等하게 公認하고 있는 民主主義 體制에서도 추방되어야 할 惡德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忠은 眞正한 人間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最善을 다 하려는 엄숙한 自我完成을 위한 德이고 보면, 東西 그 言語的 표현은 다를망정 古今을 막론하고 人間을 眞實하게 살아 가려는 者의 공통 必須德目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忠이 전인류에게 소중한 德目이라면 그 深層的 研究를 위해서 먼저 文字 構造的 측면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中」과 「心」 두 字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니, 精神的 中心과 物理的 中心이 그것인바, 精神的 中心은 한 사람의 人間性 中心으로서 그것은 心性 奧底 즉 「마음 속 깊은 곳」이며 「秘藏한 마음」이요 「秘藏한 것」은 物理世界에서도 「보배로운 것, 寶貨로운 것」이니 「마음

40) 『忠誠也』(荀子：禮論, 楊倬 註)

속 깊이 간직한 자신의 最高 보배롭고 貴重한 마음」이 忠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음 物理的 中心은 物理世界에 있어서의 中心点이며 정확히 보아서 「中心点」은 그것이 獨自的으로 存在가 가능한가부터 살피고 넘어 가야 할 문제이다. 만일 「中心点」이 어떠한 物理世界의 空間이던 제한받음 없이 아무 곳에서나 「있는 곳」이 中心点이라면 그것은 「任意点」이요 「中心」이라는 개념이 無資格한,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無意点」일 뿐이다. 그러므로 中心点이 성립되는 空間은 圓이며 그 點은 모든 直徑의 半分點인 唯一點이다. 이제 圓과 中心點 즉 圓의 面積과 中心點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空間의 數理科學 幾何學的 측면에서 알아볼 때 다음과 같은 公理가 내려진다.

「圓의 中心點은 圓의 面積의 縮小點이요 圓의 面積은 中心點의 확대 空間이다.」 이 公理에 「나」와 「人間社會」를 代入하면

「圓의 面積은 人間社會이고 中心點은 「나」요, 나는 人間社會의 中心人物로서, 人間世界를 축소한 小世界가 「나」이며, 나를 확대한 大我が 人間社會(世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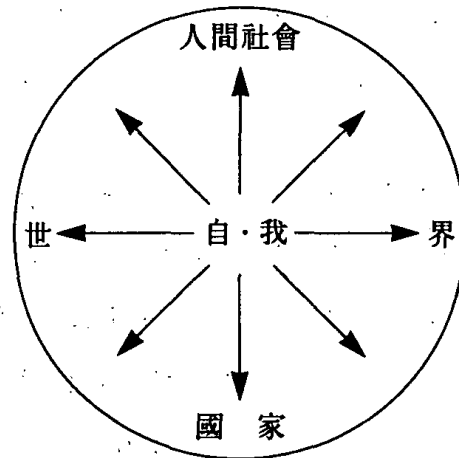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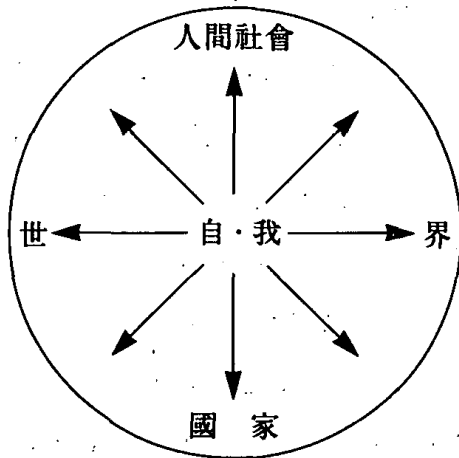
가 된다. 여기 物理的 中心 原理에 의한 忠의 새로운 해답 「世界內 中心人物의 自覺」과 그에 수반한 義務意識과 實踐問題가 제기된다.

人間은 아무리 精神이 主導하는 존재라고 하나 정신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으며 肉體를 떠나서 상상한다면 幽靈같은 非生命體가 될 것이므로 肉體的 人間存在條件을 전제하자면 時間性和 空間性的 교차점이 구체적 人間の 存在點(위치)이다. 이처럼 「이 時間」, 「이 空間」의 교차점에 내가 자리잡고 있다는 自覺은 物理的 中心으로서의 忠의 제1차 형태요, 제2차 형태는 物理的 作用으로 나타난다. 倫理와 道德은 認識이나 自覺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實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힘」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고, 이 實踐力의 作用문제는 역시 力學的 기초이론에서 참작되어야 하겠다.

中心點의 力學作用은 遠心作用과 求心作用이 있는것처럼 人間 또한 一定 空間에서 中心點의 存在로 위치하였다면 이 遠心力과 求心力이 작용할 때 참다운 實踐的 忠이 되는 것이다.

遠心作用의 忠

求心作用의 忠



① 遠心作用의 忠

遠心作用의 忠은 앞서 幾何學的 公理에서 볼 때 圓의 面積은 中心點의 擴大空間이라는 原理대로, 中心點의 존재로서의 自我가 社會 國家 世界로 自己擴大 즉 自己發展하려는 作用이다.

外向的으로 自我가 얼마나 擴大될 것인가는 이 遠心作用의 忠의 強度에 比例한다고 볼 것이다. 強度가 미약하면 할수록 自身의 活動範圍는 축소되어 「小世界我」가 되므로 前後文字만 연결하면 「小我」 「小人」이 되는 것이며, 強度가 強하면 強할수록 擴大되어 「大世界我」가 되어 前後文字만 연결하면 「大我」 「大人」이 된다. 이처럼 自我가 空間的으로 끝없이 擴大될 수 있는 原理를 忠의 遠心作用에 있다고 하는 견해와 일맥 상통하는 學說로서 金忠烈교수의 「空間生命의 擴充」 原理로서의 「忠恕」에 關한 論文이 있어 그 일부를 이에 소개한다.

『忠恕은 말하자면 個體와 全體間의 受授關係에 있어서 自己를 他在으로 推及하는 과정 즉 他在의 넓은 世界를 自己化시키는 것을 말한다. 모든 存在는 그 나름대로 宇宙의 中心이다. 따라서 世界에 얽히고 섬긴 聯繫 狀況은 그가 全體의 統攝이면서도 어디까지나 各 個體가 中心이 되어 있는 調和體이다. 이 自我中心, 世界속의 「나」라는 천인이 있고서야 「忠」의 의미가 나타난다. 忠字는 中, 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런

데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할 것은 모든 存在가 그 나름 宇宙의 中心이면서 동시에 全體統攝의 一員이라면 「내가 宇宙의 中心이다」라는 말은 나 외의 것을 나의 주위로 삼았다는 말이고, 그랬을 때 모든 個體는 나의 隨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나는 모든 存在에 대해 또한 隨伴이 되는 것이다. 이 自我를 中心으로 하면서도 또 남의 隨伴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남을 나와 똑같이 생각할 줄 아는데서 恕의 存義가 밝혀진다. 요컨대 自我中心, 自我完成 이것이 忠의 뜻이라면, 他在肯定 自我共感 推己及人, 이것이 恕의 뜻이라는 말이다.

曾子是 孔子의 道를 忠恕라고 규정하고 孔子는 哀公의 물음에 다음과 같은 답을 한 일이 있다. 「忠을 알려면 먼저 中을 알아야 하고, 中을 알려면 반드시 恕를 알아야 한다」⁴¹⁾

즉 忠은 먼저 자기의 中心 설정을 해야 하고 그 中心은 그를 둘러 싸고 있는 주위의 관계와 調節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忠은 그것을 全體와 個體의 聯繫에서 볼 때 中과 和라는 概念을 갖는다는 것이다.」⁴²⁾

「忠」이 확대될 수 있는 原理는 他在肯定, 自他共感, 推己及人하는 「恕」의 作用에 있음을 論하였다.

忠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個體와 全體와의 관계로서 個體를 全體의 部分이라 생각한다면 忠의 眞義와는 엄청난 거리로 떨어져 간다는 점이다. 그러한 기초적 착각이 國家와 國民 개개인의 관계로 적용되면, 部分者 국민 개인은 全體者인 國家的 次元에서 볼 때 圓의 면적을 구성하고 있는 數많은 点的 存在로 寒微한 존재가치밖에 인정받지 못해서, 언제나 全體를 위해서라면 部分者는 희생을 당연시하는 全體主義的 사고방식의 기틀이 형성되는 것이다. 아무리 國家는 하나이고 國民은 다수라 하더라도 하나의 圓에 있어서 中心點은 하나 뿐이듯, 國民 개개인은 唯一無二한 존재이다. 國家라고 하는 大單位 圓의 中心點의 존재라는 자각에서 비로서 前述한 幾何學的 公理에 입각한 「自我는 국가를 축소한 小國家, 世界를 축소한 小世界, 宇宙를 축소한 小宇宙요, 國家 世界 宇宙는 自我의 擴大我 즉 大我」라는 一元的 一體論의 人生觀, 國家觀, 宇宙觀을 體得하게 된다.

41) 『知忠得知中, 知中必知恕, 知恕必知外, 知外必知德』大戴禮記 : 孔子答哀公問小辨

42) 金忠烈 著 : 「中國哲學散稿」, 75面에서 引用

個體는全體의部分이라는全體主義的 思考方法과 圓의 中心点的 존재로서의 人生觀 國民觀을 政治體制面에서 본다면 古代社會에 있어서, 前者는 軍國主義 霸權主義 國家요, 后者는 儒家의 政治思想인 民本主義 王道政治 社會가 될 것이며, 現代政治社會에 있어서는 帝國主義 共產主義 社會主義 진영이 前者요, 后者는 民主主義 國家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제全體主義 체제하의 人民의 存在 價値와 民主主義 체제하의 國民의 존재가치를 數理的으로 표현해 볼 때 더욱 명백히 人生의 價値觀이 대조될 것이다.

全體主義 체제는 人民을 國家사회의 部分者로 보기 때문에 人民 개개인은 分母 分의 一, 이를테면 一億 人民이라면 1/1億이 될 것이요, 民主主義 체제 하에서는 國民 개개인을 國家사회의 主體者 中心人物로 보기 때문에 中心点은 圓의 面적의 축소의 原理에 따라全體의 集約,全體의 代表가 되어 分母 分子 等值 즉 $1億/1億 = 1$ 이 된다.

여기에 미묘한 數理的 價値觀을 발견하게 된다.

個人과全體와의 관계에 있어서全體主義社會처럼 個人을 分母 分의 一로 가치 평가하면 人口가 증가하면 할수록 즉 分母가 확대하면 할수록 分子의 價値는 反比例로 삭감된다는 사실이요, 民主主義 정치체제처럼 國民 개개인을 目的視하고 分母 分子를 等值로 하는 價値體制下에서는 分母가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分子 또한 同一한 數値로 증가 되기 때문에 國民 個人의 價値는 「1」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1」的 價値란 무엇일까?

하나의 圓에 두 개의 中心点이 있을수 없는 것처럼 國民 개개인은 그 國家사회의 唯一無二한 存在임을 뜻하며, 부속품이나 部分品처럼 언제 어디서나 代置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自體 目的者임을 뜻한다. 이와는 반대로 分母 分의 一의 존재로 취급하는全體主義 체제하의 人民의 人權은 國家사회를 目的한 道具的 존재로 간주, 필요할 때만 利用하고 필요 없을 때는 못 쓰게 된 부속품처럼 폐기된다.

이처럼 忠을 中과 心의 會意文字的으로 풀이할 때 高貴한 人尊思想과 人權의 소중함을 재인식할 수 있고 儒家에서 높히 崇尚하게 된 까닭은 깨닫게

되었다.

② 求心作用의 忠

前述한 幾何學의 公理에서 圓의 中心點은 圓의 面積의 축소체라는 原理에 따르면 忠의 求心作用은 中心點이 圓周까지 확대되었던 現象이 다시 中心點으로 축소하는 作用으로 비유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圓의 전체面積을 中心點 안에 완전 축소하자면 中心點이 그 圓의 中心 위치라는 唯一點에 자리잡고 있을 때만 가능할 뿐, 추후도 그 자리를 이탈하면 그러한 點은 圓의 面積을 구성하는 무수한 點들처럼 圓의 部分의 처지로 떨어져 唯一無二한 存在價値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力學的 측면에서도 圓輪의 回轉에 있어서 中心點 確保가 얼마나 全體에 미치는 영향이 至大한가 한 實例를 들어 생각하기로 한다. 自轉車의 경우 心棒이 車輪 中心 위치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어야 車輪의 회전이 가능해서 목적지로 走行할 수 있지만, 만일 車輪의 半徑 鐵線이 여러 개 단절되어 心棒이 동요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鐵線도 모두 단절되어 心棒과 車輪(圓의 面積)은 완전 분리되고 車輪은 어디론지 굴러가서 車體는 낭떠러지로 전락되어 人命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車體 전체의 安全 총책임은 회전하는 圓輪의 中心棒이 자기 위치에 健在한가 여부에 달려있다.

「機械工業의 發展度는 베어링(bearing)技術이 尺度가 된다.」는 機械產業界의 俗談은 그 나름대로 뜻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으니, 즉 物理世界에도 「忠」이 아니면 機能을 발휘할 수 없을뿐 아니라 파괴된다는 교훈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한다. 베어링은 모든 기계의 回轉 中心部品으로 回轉軸 즉 心棒이 제자리에 嚴正히 위치하도록 책임지고 있는 決定的 部品인 만큼, 베어링이 마모되면 心棒이 동요되어 기계전체의 가동에 균형을 파괴한다.

우리가 너무 專攻이라고 하는 특수 分野에 집착하다 보니 眞理는 전공분야마다 千態萬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眞理의 普遍性의 측면에서 본다면 분야별 특수 眞理들 間에 共通原理를 類推할 수 있는 것 처럼 크게는 自然科學의 原理와 人文社會科學의 原理 間에도 共通性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요 「忠」의 경우가 그 事例라 하겠다.

人間社會라고 하는 大型 機械가 원만히 운영되자면,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는 回轉輪의 베어링이요, 自身은 回轉軸으로서의 心樁이라 깨닫고, 그 위치에 주어진 使命을 다 할 때 自身과 全體는 一絲不亂하게 共通目的 달성에 전진하게 된다.

이때 回轉軸에 集中되는 回轉力, 全體가 中心點으로 집결되는 壓力 그것이 力學的으로 求心力인 것이며 人間도 社會生活을 하자면 맡은 바 自己職分에 最善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應分の **責任意識**이라는 **義務感·精神力**과 職責에 애착심을 갖고 忠實히 遂行하려는 **強意志**가 忠의 求心作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責任意識을 일상생활에서는 「誠實」, 「忠實」이라 하거나 사회구성원 모두가 應分の 職責에 최선을 다 하는 「誠實性」, 「忠實性」을 발휘한다면 그 사회는 건전한 발전이 기약될 것이다.

따라서 忠은 사회구성 계층에서 유독 下位者에게만 강요되는 德目이 아니라 오히려 上位層에게 더욱 責任意識의 忠實과 誠實性이 요구되니, 機械의 경우도 回轉輪이 크면 클수록 回轉軸에의 壓力이 強하게 作用하는 原理와 같이, 人間社會의 高位職에 있을수록 下位者에 미치는 指導力과 운영능력이 加重하기 때문이다. 만일 한 나라에 高位職으로 있는 사람이 막중한 職責에 不忠實하거나 無能하다면 政治는 침체에 빠지고 國力은 쇠퇴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의 主權을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한 民主政治體制 下에서는 上下職을 불문하고 全國民이 각자 國家의 中心人物이라는 自覺에서 그 機能을 발휘할 것이 절실히 요청되므로 「忠」의 現代的 定義를 내린다면 「**民主國民的 自覺과 正當한 民權行事**」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忠」은 이처럼 世界內 存在, 國家社會內 中心存在로의 自己를 發見하고 所任에 最善을 다 하는 求心作用의 忠은 忠經에서도 言及한 「忠也者, 一其心之謂也」의 「一心」作用과 통한다. 「一心」은 萬人 각자 成事의 要諦라 하겠다. 每事 不成하는 까닭은 사람마다 「마음」이 흐트러져 散亂했을 때 精神的 集中力이 消散되어 實踐力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四方에 흐트러진 자기 마음을 하고자 하는 目標에 集中시키는 精神作用, 그 誠心을 「求心作用의 忠」이라 할 수 있고 그 求心力의 強度에 따라 成功도 比例할 것이

다.

그러므로 忠은 內的으로 공고히 自己 誠實性을 다짐하고 外的으로 끝없이 발전하는 위대한 **創造의 自由意志**라 할 것이다.

自由民主主義가 그 眞面目대로 高度 발전하기 위해서는 國家 구성원 모두 이러한 眞忠으로 心性을 도야하여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最善을 다하는 忠의 實踐에 있으니 忠은 民主德目이다.

3. 烈로서의 醫統

‘烈’이 道德의 한 要目으로 승상되고 末世의 救援의 처방인 醫統 가운데 하나로까지 높이 평가받게 된 것은 龜山思想에서 비롯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個人的 道德的 修鍊으로 시작하여 全人類의 道德的 完成의 世界인 ‘平天下’로 目標 달성을 期하려는 儒學의 경우에 있어서도 五常인 仁·義·禮·智·信을 비롯하여 孝·悌·忠·恕·恭·寬·敏·惠·愛·誠·敬·中庸 등 수 많은 德目이 열거되고 있으나 ‘烈’의 중요성은 강조된 바 찾아 보기 어렵다.

그러나 龜山의 道德哲學에 있어서는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을 慨嘆한 것을 보면 「忠 孝 烈」은 重病에 빠진 人類社會를 치료하는 가장 절실한 基本德으로 꼽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忠과 孝’는 東西古今 널리 알려지고 그 실천이 요청되고 있으나, ‘烈’의 경우는 龜山이 독특하게 「忘其師者」를 지목하여 내린 「無道病」의 病原體라 할 「無烈」로 파악하였다는 데서 크게 주목을 끈다.

따라서 ‘烈’은 그 間 우리가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概念 이상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고 ‘無烈者’는 누구이며 ‘有烈者’는 누구인가. 그 해당범위를 現代社會에서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단서로 龜山은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강

륜(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不義)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
 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배사률(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셨도다.』⁴³⁾

이라 하였으니 文脈을 이어 가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여기 「先天
 에서는 相克之理」가 지배하여 「제자가 先生을 뺏치는 下克上의 일」이 있었
 으나 이후로는 「綱倫이 나타나므로……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는 背師
 律의 罰이 있으리라」는 教法은 곧 「下克上者」가 「無道者요 無烈者」임을 뜻
 한다.

生父에 버금가는 養父라 할 스승의 가르침 그 은혜를 背反하는 下克上者
 는 背恩忘德者로서 罪目은 背師律을 犯함이요, 그러한 背信者는 天地公事로
 새로히 열일 後天世界에서는 生存할 자격이 없다는 가르침이다. 이러한 一
 連의 敎示를 정리하면

『下克上者 = 背恩忘德者 = 背信者 = 無烈者 = 後天世界 生存不可者』

가 된다. 不孝子가 있는 가정의 父母는 더 이상 살아 갈 의욕을 喪失하
 듯, 背恩忘德하는 背信者 無烈者가 많은 社會는 希望없는 刑罰場의 삶이라
 하겠기에 ‘烈’로써 信義社會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1) 烈의 字意的 考察

‘烈’을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사용하여 왔는가 國內外 字典을 통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 李相殷 監修 :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刊

烈 : ① 세찰 렬(火勢가 強함) 「猛烈」

② 사나울 렬 ③ 굳셀 렬 ④ 매울 렬 ⑤ 불사를 렬 ⑥ 빛날 렬

⑦ 밝을 렬 ⑧ 아름다울 렬 ⑨ 사업 렬 (大事業) ⑩ 나머지 렬

43) 典經 : 教法 3장 34절 257面

○ 李家源 張三植編著 : 「漢字大典」, 韓英出版社 刊

烈 : ① 火猛 ② 光也 ③ 業也 ④ 美也 ⑤ 威也 ⑥ 忠直 ⑦ 毒也 ⑧ 暴也
⑨ 寒氣

○ 中國 湖北辭典出版社編 : 「漢語大字典」

烈 : 위 李家源 張三植編著와 ①②③④⑤⑥⑦⑧⑨와 같고 ⑩剛直이 追加
됨.

○ 中國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編著 : 「漢語大詞典」 卷七 61面,

烈 : 위 中國 漢語大字典과 같은 내용이면서 ⑪ 堅貞 ⑫ 威武 威力이 追
加됨

○ 中國上海 辭典出版社編著 : 「辭海」, 上·中·下의 下篇 3586面

烈 : 火勢猛, 光明, 功績, 正直, 剛毅, 貞烈, 濃烈的 香氣, 顯赫,

등 大同小異함을 알 수 있다.

우리 日常生活에서는 '烈' 單字로 사용되기 보다는 '烈'로 상징되는 人物
은 '烈士' '烈女'가 널리 알려져 있다.

國內 辭典에 따르면 거의 모두

烈士 : 節義를 굳게 지킨 사람

烈女 : 貞節이 곧은 女子

로 되어 있다. 中國의 代表的 辭典인 '辭海'에 따르면

烈士 : 指堅貞不屈的剛強的士. 指有志建立功業之人

烈女 : 指剛正有節操的女子. 封建社會也稱不願改嫁, 或被侵辱而殉身的女子
爲烈女

또 中國辭典을 復刊한 景仁文化社의 「漢文大辭典」 10卷에 따르면

烈士 : 重義輕生殺身成仁之士也

烈女 : 重義輕生之女子也

로 되어 있다.

다음 英語를 통하여 西洋社會에 '烈'에 해당하는 概念이 있는가? '烈'로 추대받을 人物은 어떻게 表現되는가 알아 보기로 한다.

그러나 '烈'한 字에 해당하는 單語는 西洋 어느 나라에도 찾아 볼 수 없고 '烈'의 의미에 유사한 單語로는

熱烈 : ardor, ardour 熱烈한 : ardent, fervent

烈士 : a man of fervid loyalty, a patriot, a hero

烈女 : a exemplary woman, a virtuous woman, a heroine

등으로 表現할 수 있으나 東洋社會의 '烈'에 부합된 어휘나 單一概念은 찾을 길이 없어 複合概念으로 어색하게 표기할 수밖에 없다. 言語는 意識의 表現이요 道德의 要目은 그 社會의 價値觀의 반영이라면, 여기 東·西洋의 意識構造와 價値觀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事例라 하겠다.

'烈'은 生보다도 義를 重히 여겨 不義와는 生命을 걸고 투쟁하다 力不足할 때는 장엄하게 죽을 망정 비굴하게 連命하려 하지 않는 正直 正義로운 정신을 뜻한다. 權力과 金力 利權 앞에 義理를 背反하고 結탁하는 무리들이 많은 現代社會에서는 絶실히 요청되는 崇高한 정신이 烈이 아닐 수 없다.

西洋社會에 이러한 單一 德目이 없다는 사실은 物慾을 충족시키려는 物質文化에 치중하여 온 그들 歷史意識과 價値觀때문이라 하여도 잘못된 판단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烈의 現代的 意義

現代는 한 나라의 政治指標에 있어서나 國際社會의 動態를 보더라도 經濟第一主義를 내세워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므로 나라 안의 국민관계나 국제 사회내의 國家組織도 自我 自國의 利益 추구만을 目的視한 非情한 打算的 組織體가 되었다. 여기에 信義를 위해서 自我나 自國의 損害를 甘受한다는 思考方式은 이미 前近代的 自害 自滅的 處世術로 생각하도록 되었다.

이러한 社會風潮 때문에 私利私慾을 위해서 背信行爲가 能事로 자행되어 國事를 全業으로 하는 政治人들도 國利民福보다는 自黨과 自身の 利權 추구에만 몰두하여 政治를 어지럽히며 國難을 加速하고 있다.

國防을 책임진 將星이 政權을 찬탈하기 위해서 총뿌리를 首都로 돌려 大統領職을 強占하고, 在任中 天文學的 부정축재를 하는가 하면, 病든 祖國을 구원하겠다며 清廉潔白한 政治를 就任辭에서 宣布한 大統領이 自身の 一家도 다스리지 못하고 그 子息으로 해서 國事와 國家經濟를 송두리채 뒤흔든 大事件을 야기하였음은 全國民 앞에 이보다 더 큰 背信行爲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미 龜山은 現代社會의 이러한 病理를 ‘無烈’이라 진단하고 處方을 ‘烈의 回復’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背信罪는 背師律을 犯한 때문이라 하였고 背師者는 背恩忘德者요 下克上者들이라 하였다.

작은 背恩·背師행위가 원인이 되어 크게는 國家와 國民을 背反하는 大逆罪로 확대되고 그러한 風潮가 世界化될 때 國際利己主義의 經濟戰爭時代가 되래함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 病菌이라 할 背恩·背師행위를 敎育과 社會敎育으로서의 宗教에서 退治해야 하는 바, 筆者는 敎職者로서 敎育現場에서 수시로 체험하며 力不足에 失望을 금치 못할 때가 허다하다.

實例를 든다면 筆者는 大學에서 學科의 專攻科目 외에 敎養必須와 敎養選擇科目을 강의하여 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百名 이상을 한 강의실에 수용하는 大單位 강의를 많이 하여 왔다.

哲學과 倫理學 論理學과 같은 학문이 학생들에게 흥미있는 人氣科目이 아

니기에 처음 수강할 때의 기대에 어긋남인지, 강의 도중에 교수가 板書할 때 책을 읽는 틈을 이용하여 도피하는 학생이 빈번하다. 심한 경우, 哲學概論이라는 강좌가 선택과목이었지만 학생들에게는 高次元의 매력을 느꼈던가 142명의 학생이 수강신청하였으나 教務課에서는 二個班으로, 分班하지 않고 一室에 合同講義하도록 하였다. 50分 한 時間을 3時間 하도록 되어 있어, 75分 강의하고 10分 쉬어 75分 후속 강의하기로 학생들과 合意를 보았다. 그러나 첫 75分 강의는 그런대로 진행이 되었으나 後半 강의 때는 半數 이하로 학생들이 크게 감소하였다. 쉬는 시간에 대부분 도피한 것이다. 또 남아 있는 학생들도 기회를 보아 달아나서 끝날 때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專攻科目은 30명정도여서 그런 실태가 없으나 교양과목의 경우는 여러 學科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터이라 70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의 心理가 자신의 就業과 직접 관계가 없고 적당히 學点만 취득하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안이한 기분으로 수업에 임하다 보면 취미에 맞지 않을 때 구속적으로 앉아 청강할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빠져 나가려 하며, 한 時間 강의하고 쉬 후에 續講하면 많은 학생이 불참하는 것이다.

물론 도피하는 학생에게 주된 잘못이 있으나 교수의 강의방법과 강의내용에도 문제가 있음을 自認하여, 그럴 때마다 最善의 강의를 하려고 온갖 정성을 쏟으면 남아 있는 학생은 감명 깊게 청강하는 모습에 교수는 감사하나 등을 돌리고 退室하는 학생은 情과 誠도 통하지 않아 가슴이 아프다. 이처럼 스승의 깊은 情과 誠에 등을 돌리는 학생이 現代版 背師律을 犯하고 있는 實証者라 하겠으며 그러한 類의 학생이 너무나 많다는데 教育者의 고민이 있다. 결석을 週期的으로 하며 출석 呼名時 代理對答으로 출석미달을 모면하려는 학생, 강의 끝나고 출석 점검하면 강의 끝날 무렵에 入室하는 학생, 출석은 빠짐없이 하면서 教科書없이 落書나 잡담으로 시간을 虛送하는 학생, 강의시간에 아예 강의와 무관한 小說 잡지등을 읽고 있는 학생등 교수의 강의에 등을 돌리는 학생의 종류는 헤아릴 수가 없다.

大學教授 생활 數十年에 기억에 남을 善良한 학생은 많지 않지만 背信感에 분노를 금치 못 할 학생들이 오히려 많았다는 이 슬픈 告白은 甌山の

‘無烈病’時代라는 진단으로나 스스로 위안하고 아픈 마음을 달래 본다.

二部 結 論

無道한 末世를 退治할 處方으로 有道라는 醫統의 구체적 六大德目 忠·孝·烈·禮·義·仁을 古典과 現代的 시각에서 연구하는 것이 本 ‘醫統에 관한 研究’論文의 主流를 이루는 바, 一部에서 基本德인 ‘孝’를 解明하고 二部에서는 忠·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封建社會 君主主義政治體制의 根幹德目이라 할 忠이 어떻게 民主政治社會에서 그 效力을 발휘할 수 있는가? 社會主義 共產主義陣營에서는 反民主 惡德이라고까지 酷評하고 있는 상황에서 亡國病을 치료할 醫統이 될 수 있는가? 에 초점을 맞추고 眞忠의 正體를 알아 보았다.

그러나 忠은 文字 構造로 보아도 ‘中’과 ‘心’이 숨한 ‘中心’思想이요 四方에 흩어진 마음을 한 곳에 集中하는 ‘一心’作用이며 朱子の 해석처럼 ‘盡己心’하는 最善의 努力을 다 하는 精神力인 것이요 國民이 國家와 國王에게 生命까지 받쳐 희생할 것을 讚美한 服從의 美德과 같은 從屬 強要 德目일 수 없었다. 그렇게 觀念化된 까닭은 數千年間 계속되어 오던 君主政治體制가 國民을 ‘忠’의 美名으로 財産과 勞動力 生命까지 착취함을 正當化하기 위한 조작된 ‘假忠’때문임을 알았다.

筆者는 오히려 忠의 眞意로 보아 人類 모두가 自身을 國家社會 世界內 存在로서 中心人物的 自覺을 하여, 그 責任을 완수하기에 最善을 다 할 것을 촉구하는 最高의 民主德目임을 闡明하였다. 그 原理는 個人과 國家 世界와의 關係를 圓의 中心點과 圓의 面積과의 關係로 보아, 中心點은 個人이요 面積은 社會 國家 世界로 認識, 幾何學的으로 中心點은 圓의 面적의 縮小點이요 面적은 中心點의 擴大라는 公理에 따라, 個人과 國家 世界는 二元的 對立關係가 아닌 一元的 縮小 擴大의 統一體로 自覺함이 忠의 一次的 이해이며, 二次的으로 그 실천은 力學的으로 求心作用의 忠과 遠心作用의 忠이

發效해야 한다고 하였다. 求心作用의 忠은 하고자 뜻한 바에 精神力을 總集中하는 一心作用이며 遠心作用의 忠은 社會 國家 世界를 自身이 擴大된 大我로 인식, 能力을 最大限 발휘하여 自己가 成長하고 그로 해서 社會 國家 世界의 발전을 期하는 主役됨이다.

人類 모두가 이렇게 忠을 실천할 때 個個人들은 每事에 成功이 기약되고, 그가 자리한 社會 國家 世界史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忠이 世界化될 때 人類歷史의 발전은 加速化될 것이니, 그 間 잘못 觀念化되어 君王이나 國家에게 奴隸처럼 服從만을 讚美하던 假忠은 청산되고 永遠한 民主 創造精神으로 崇尚되어야 할 것이다.

甌山이 바라던 忠도 이것이었을 것이다. 甌山 在世時 風前燈火와 같은 國運을 바라보며 亡國의 恨을 國王 한 사람이나 高官 몇 사람만의 責任에 있다 보지 않고 國民 모두의 無氣力과 不誠實 不忠實이 結果한 것이라 판단, '世無忠'을 慨嘆하였을 것이다.

다음 '烈'을 醫統의 한 德目으로 강조한 까닭은 「忘其師者」가 많아 背師律을 犯하는 背恩忘德하는 무리들이 어지럽히는 不信風潮와 不正 腐敗한 社會相을 直視하고 正直하며 信義를 生命처럼 존중하는 義人 烈士가 그립고 아쉬워 病든 社會 淨化의 處方으로 제시하였을 것이다. 筆者는 현재도 大學敎壇에서 敎授의 熱講에 등을 돌리고 退室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背師者의 背信에 가슴이 아픔을 수시로 경험하며, 저들이 社會로 진출했을 때 背信的 指導者然할 것을 생각하면 信義와 烈의 德目이 더욱 간절하게 요청된다.

【참고문헌】

論語

中庸

大學, 忠經

禮記, 左傳

周易, 國語

四書集註

荀子, 說文

典經：大巡眞理會 出版部

安鍾沄 著：「民主倫理學要論」, 螢雪出版社 刊

上海師範大學 政治教育科 編著：「中國哲學史綱要」, 上海人民出版社 刊

童書業·高亨·王先進·湯一介 著：「孔子思想討論集」, 中華書局 刊

金忠烈 著：「中國哲學散稿」, 汎學圖書 刊

黃建中 著：「比較倫理學」, 正中書局 刊

葉經柱 著：「孔子的道德哲學」, 正中書局 刊

張其昀 著：「孔學今義」, 華國出版社 刊

勞恩光 著：「中國哲學史」, 三民書局 刊

張定宇 著：「中國道德思想積義」, 正中書局 刊

武內義雄 著：「支那思想史」, 岩波文庫 刊

木村英一 著：「中國哲學の探究」, 創文社 刊

「漢韓大字典」：李相殷 監修, 民衆書林 刊

「漢字大典」：李家源·張三植 編著, 韓英出版社

「漢語大字典」：中國湖北辭典出版社編

「漢語大詞典」：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編

「辭海」：上海辭典出版社 編著

「漢文大辭典」：景仁文化社 刊